

올해의 10대 뉴스

5. 대통령 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 개최

여성의 정치적 영향력 확인

여성단체들이 대통령 후보를 초청 토론회를 벌인 것은 92년 여성들의 정치적 향상을 상징한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경오)의 6월15일 조찬 간담회에는 여성계 지도자 1백여명이 참석해 후보의 연설을 듣고 질의를 벌였다. 17일 정주영 후보초청 간담회는 전문군경미망인회 회원이라고 신분을 밝힌 여성 수십명의 항의시위로 무산됐다.

또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11월16일 프레스센터에서 '14대 대통령후보 초청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는 김영삼 민주당 대통령후보가 불참한 채 김대중 민주당 대통령 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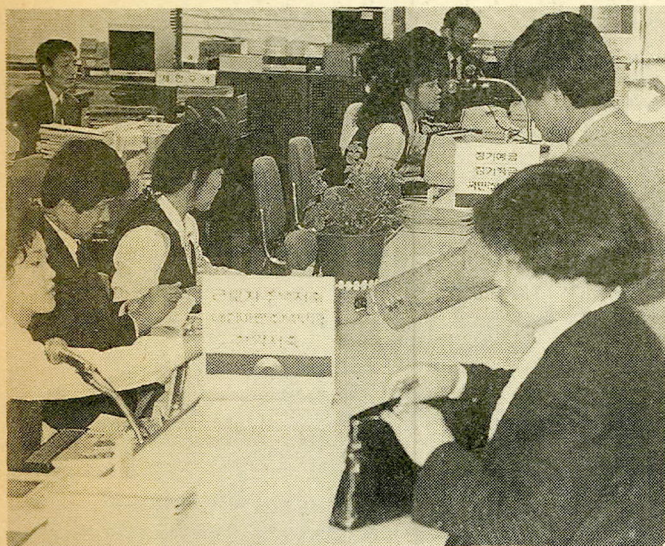
92년은 여성단체들이 대통령후보 초청토론회를 개최, 정치력의 향상을 보여주었다.

와 정주영 국민당 대통령 후보를 상대로 각각 진행됐다. 손봉숙, 김애실, 이영자 교수 등 7명의 토론자가 여성문제를 비롯한 국정전반에 걸친 질의를 벌였다.

이 밖에도 대통령선거 후보들은 한국유권자연맹 23주년 행사, 성폭력위기센터 발기인 대회 등 여성단체 행사에 참여하는 이례적인 '발견적(?)' 모습을 보이기도.

6. 여행원제 폐지

동일노동·임금 실현의 발판으로



10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제일은행의 여행원제도 폐지 사건은 은행계에 30여년간 지속돼온 남녀임금차별을 시정,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했다.

제일은행은 여행원 제도의 폐지를 발표하던 9월15일 △기존의 여행원 전원을 행원으로 전직 △신규채용시 남녀구분 배제·일률적 행원 채용 △남녀구분 없는 인사관리 등의 시행 세칙도 밝힘으로써 여행원 채용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7. 여성연극 활기

여성문제 다룬 1인극 흥행에 성공

여성의 문제를 다룬 연극들이 흥행에 성공을 거둔 것은 92년 문화계의 특성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윤석화의 〈딸에게 보내는 편지〉, 김지숙의 〈당신의 침묵〉 등 여성문제에 가까이 접근해간 1인극이 유례없는 장기공연을 기록했다. 또 이영란의 〈자기만의 방〉은 여성학 강연극이라는 딱딱한 형식에도 불구하고 흥행에 크게 성공한 작품이다. 〈딸에게〉, 〈당신의...〉, 〈자기만의 방〉 등 연극계의 흥행판도를 바꿔놓은 이 세 연극은 여성 연극인이 여성문제를 말하는 1인극이었다는 공통점을 보이기도.



이영란 1인극 〈자기만의 방〉.

8. 동두천 윤금이 씨 살해사건

한미관계 새 쟁점 부각

지난 10월27일 동두천에서 발생한 윤금이 씨 살해사건은 주한미군 케네스 마클 이병(20.미2사단)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로 '범죄수사 및 재판권' 행사를 둘러싸고 한미관계의 새 쟁점으로 떠오른 사건이었다.

특히 이 사건이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등으로 빚어진 민족적 자존심 논란으로 비화된 것은 경찰과 검찰이 범인으로 검거된 마클 이병을 기소조사도 없이 미군범죄수사단의 신병인도 요청에 응했기 때문. 이에 〈주한미군의 윤금이 씨 살해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한국측의 고유 재판권 행사요구 등 즉각적인 범인 구속수사,



윤금이 살해사건 공대위의 시민규탄대회.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범시민규탄대회를 개최했고 스미2사단 항의방문이 잇달았다.

그러나 11월10일 검찰이 마클 이병의 '불구속 기소' 방침을 발표하자 시민들은 이를

한미관계의 냉각을 우려한 저자세에서 나온 것이라고 반발, 마클 이병의 재판을 앞둔 지난 10월4일부터는 '구속처벌 및 공정한 재판권행사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9. 리우 환경회의

세계 여성연대 기틀 마련

올해 열린 행사 가운데 가장 큰 화제를 모은 것 중 하나가 바로 지난 6월2일부터 브라질에서 열린 리우환경회의다.

세계적인 이슈가 된 환경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전세계에서 정부지도자는 물론 민간환경단체(NGO) 지도자와 운동가들이 대거 참석한 이 자리에 국내에서도 정부관련자와 기업, 여성, 환경단체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하기도 했다.

특히 이 회의에는 여성민우회, 교회여성연합회 등 환경, 반핵문제를 현안으로 다루고



있는 여성단체의 관계자 6명이 참여해 환경운동을 펼치고 있는 아시아지역 여성들과 연대모임을 갖기도 했다.

이번 리우회의는 다른 어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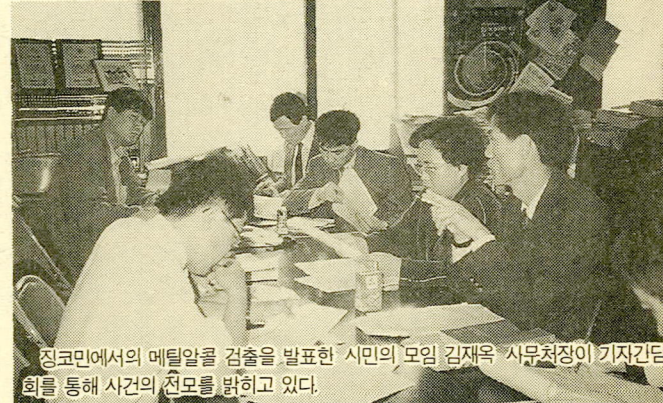
회의보다도 여성의 참여가 두드러진 회의였다. 6월 회의가 열리기 전 서구 및 남미, 아시아지역 여성, 환경단체의 여성 지도자들은 91년 11월 마이애미에서 '건강한 지구를 위한 세계여성회의'를 갖고 '여성행동강령 21(Women's Action Agenda 21)'을 발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국내 여성단체의 경우 조직적 참가를 통해 연대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이후 환경문제에 있어 여성들의 연대를 펼칠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10. 의약품 메틸알콜 검출

소비자단체가 거둔 또하나의 쾌거

지난 5월 시민의 모임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의뢰, 동방 제약 '징코민' 등 생약제제로 만든 의약품의 메틸알콜 여부를 검사한 결과 인체에 유해한 메틸알콜이 검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다.

이 사건은 소비원의 검사결과에 대해 동방제약측이 "절대 메틸알콜을 사용한 적이 없다"며 소비원들을 고발하겠다고 나선데 이어 보사부도 "메틸알콜의 허용치는 0.1%이며 징코민의 다른 의약품은 기준치 이하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소비원과 시민의 모임을 비난하면서 뜨거운 공방전을 벌



징코민에서의 메틸알콜 검출을 발표한 시민의 모임 김재욱 사무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있다.

였으나 재정밀검사와 메탄올 사용이 입증되었다.

결국 이 사건은 소비자단체의 쾌거로 기록되면서 보사부와 국립보건원의 신뢰성에 치명타를

가하고 의약품 전반에 대한 불신과 제약업계에 유례없는 불황을 몰고 왔으며 보사부와 기업간의 불투명한 관계를 보여주었다.